이자 장사 한눈에 비교…은행별 예대금리차 첫 공시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6.33%…19곳 중 가장 커

〈가계대출 기준〉

인터넷은행선 '토뱅' 5.6% 최고
은행硏 소비자포털서 정보 제공
개인 신용에 따른 비교 손쉬워져
은행 간 금리 경쟁에 불붙을 듯

2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됐다.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사진은 최근 서울 한 시중은행 외벽에 설치된 대출 관련 현수막. 뉴시스

주요 은행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은행	예대금리차
전북은행	6.33%
토스뱅크	5.60%
광주은행	3.39%
케이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
신한은행	1.62%
우리은행	1.40%
NH농협은행	1.40%
KB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04%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22일 오전 11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시행됐다.

그간 은행권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공시 주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이 잔액에서 전월 신규 취급액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 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눈 9단계 공시로 세분화해 개인 신용점수 구간에 따른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1위

예대금리차는 직전 달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대출금리가 높고 수신금리는 낮은 것으로, 은행은 이자이익이 증가해 수익성이 향상되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크게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와 기업대출 금리까지 포함한 대출평균 기준 예대금리차로 구성됐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9개 은행 중 전북은행이 6.33%로 가장 컸다. 서민금융진흥원 연계대출인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1.62%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NH농협은행 1.40%, KB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04% 순이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산출 시 고금리인 서민금융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며 "금리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취하면서 가계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토스뱅크 5.60%, 케이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금리까지 포함한 대출평균 예대금리차에서는 토스뱅크가 5.65%로 19개 은행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1.36%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 1.29%, KB국민은행 1.18%, 신한은행 1.14%, 하나은행 1.10%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2.45%, 카카오뱅크는 2.33%다.

토스뱅크 측은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높아 평균 대출금리가 타 은행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2%대 금리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통장) 중심의 사업적 특성이 수신금리에 반영되지 않아 수신금리가 고객이 실제 체감하는 금리보다 낮게 공시됐다"고 했다. 토스뱅크의 대출 고객 중 중저신용자 비율은 7월 말 기준 약 38%다.

●수신금리 인상으로 코픽스 상승 우려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폭리 1위 은행'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지 않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신금리를 조정해 왔다. KB국민은행이 'KB스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12%로, 신한은행이 '쏠 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3.20%로, 하나은행이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연 3.40%로, 우리은행이 'WON플러스 예금' 금리를 연 3.16%로 인상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가파른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려 대출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앞 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우리카드, 혜택 많은 '코오롱몰 우리카드' 출시

우리카드와 코오롱FnC가 손잡고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코오롱몰 우리카드'(사진)를 내놓았다. 코오롱몰을 비롯해 코오롱FnC 모든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매장(백화점·아울렛 제외)에서 5% 할인 혜택을 준다. 최대 36개월 장기할부 및 할부금 할인,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패션기업인 코오롱FnC를 표현하기 위해 카드를 의류 라벨로 디자인했다. 또 카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상품 안내장은 재생용지를 사용해 ESG 경영을 실천했다.

농협은행, 쌀의 날 기념 '고봉왕' SNS 이벤트

NH농협은행이 9월 9일까지 자사 공식 SNS에서 '쌀의 날 기념 고봉왕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고봉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높이 담은 밥)을 즐겨먹는 지인을 소개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유기농 농협 쌀(4kg)을 제공한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8월 18일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풀어쓰면 팔십팔(八十八)이 되는 것에서 유래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쌀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쌀에 대해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은행, 내일 유튜브서 'KB연금 컨퍼런스'

KB국민은행이 24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KB연금 컨퍼런스'를 연다. 주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디폴트옵션 도입 길라잡이, 금리 상승기의 DC 투자방법, 디폴트옵션 도입을 위한 KB국민은행 지원사항 등을 마련했다. 참가신청은 23일까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퇴직연금 공지사항 내 전용 링크 및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상장지수펀드). 사진제공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타이거 ETF' 순자산 30조 돌파

연초대비 3조8000억 이상 늘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타이거) ETF(상장지수펀드) 전체 순자산이 30조 원을 돌파했다.

16일 기준 TIGER ETF 종목 142개 전체 순자산은 30조481억 원으로, 연초 대비 3조8113억 원 증가했다. 회사 측은 "같은 기간 국내 ETF시장이 3조6405억 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TIGER ETF가 국내 ETF시장을 견인한 셈"이라고 했다.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는 'TIGER 미국 S&P500 ETF'다. 연초 이후 순자산이 6882억 원 증가했다. 해당 ETF는 미국 3대 대표지수 중 하나로, 전반적인 미국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밖에도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도 각각 5221억 원, 4740억 원 늘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는 2006년 한국거래소에 3종목을 상장하며 시작됐다. 테마와 섹터 등 다양한 ETF를 출시해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1년 캐나다 'Horizons ETFs(호라이즌스 ETFs)'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ETF 시큐리티스)'를 인수하며 글로벌 ETF 네트워크를 갖췄다. 권오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부문 대표는 "올 들어 시장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제공하면서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라며 "향후 전 세계 혁신성장 테마와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해 선보이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8월 23일 (화) 음력: 7월 2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옹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인덕을 보지만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원숭이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열심히 하지만 실속이 없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곧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떳떳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옥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고 뱀띠와 함께하라.	감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역마다.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투자행위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욕심으로 남은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23일(화)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최고기온(℃)
서울	60/10	25/30
인천	60/0	23/29
춘천	70/30	24/30
강릉	70/30	25/28
대전	60/60	24/30
전주	60/60	25/30
광주	60/60	25/31
대구	60/60	24/33
부산	20/60	25/31
창원	20/60	24/32
제주	20/30	26/34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9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